

##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 경험에 대한 이해와 학교상담의 개입\*

윤 윤 영

유 금 란<sup>†</sup>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다. 상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의 상실 외에도 다양하지만,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등을 포함한 상실 경험과 이로 인한 슬픔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실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우울, 무감각, 죄책감, 분노 등의 정서적 고통 외에도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들의 고통을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학교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학교상담에 기초한 개입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상실과 슬픔에 따르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ASCA 모형을 중심으로 생활지도, 개별계획, 반응적 서비스, 체계지원 등의 영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슬픔과 상실 경험에 학교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앞으로 계속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 경험에 학교상담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지속적인 연구에 대한 제언 및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상실, 슬픔, 학교상담

\*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2012년도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 02-2164-4271, E-mail : kyu@catholic.ac.kr

상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상실에 따른 슬픔과 애도에 다양한 수준으로 반응한다(Heath, Leavy, Hansen, Ryan, Lawrence & Sonntag, 2008; Howarth, 2011). 상실은 대개 애착 대상의 죽음이나 이별과 같은 커다란 의미에서의 상실을 의미하지만(Anderson, 2010; Hoeksema & Larson, 1999; Howarth, 2011), 그 외에도 인간관계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관계의 상실, 갑작스런 사고나 질환에 의한 신체적 기능의 상실, 주변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는 물질적 상실, 역할의 상실 등이 포함된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이 갑자기 떠나거나 사라졌을 때 느끼는 정서적 고통이 바로 슬픔이다. 따라서 슬픔은 상실을 경험한 이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Howarth, 2011).

슬픔과 상실(Grief and Loss)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의한 상실과 그에 따른 슬픔의 과정과 대처가 대부분이다(Anderson, 2010; Beckel, 2006; Hoeksema & Larson, 1999; Howarth, 2011).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상실의 경험은 그 외에도 많다. 친구(또는 우정)의 상실, 가족구성원의 죽음이나 결별(부모의 이혼), 사랑하는 사람의 심각한 병, 급우 또는 친구의 죽음, 애완동물의 죽음, 경제적 안정의 상실, 이사, 전학 또는 졸업, 집을 떠나는 것(moving away from home), 성적 하락을 포함한 꿈의 상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Burns, 2010; UT Counseling and Mental Health Center; <http://www.Helpguide.org>, <http://www.griefhelpsacramento.com>).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상실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슬픔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자신의 슬픔을 수면장애, 신체적 불편, 문제 행동, 철회된

행동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쉽게 인지되거나 알려지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실에 따른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Burns, 2010). 따라서 학교는 상실에 따른 슬픔을 경험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치료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상실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다수의 상실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는 교육적 역할 외에도 가족 외의 또래나 성인들과의 중요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발달적 장소이다. 때로는 교사가 아이들의 고통을 가장 잘 인식하는 어른이므로 객관적 관찰자로서 지금까지 인지되기 어려웠던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동이나 정동에서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실과 슬픔으로 고통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Burns, 2010; Perry, 2001).

최근 우리 사회는 맞벌이의 증가, 이혼 및 한부모 가족의 증가, 가정교육의 부재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부모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거나 돌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상담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슬픔과 상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난 다양한 상실 경험에 대해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위로받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해결되지 못한 슬픔은 성인기 정신병리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자아는 성장 중이고 대처 기술 또한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 취약

할 수 있다(Dutton, 1999). 이러한 상실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교는 가장 강력한 자원일 수 있기에 학교상담의 개입이 중요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상담분야에서의 슬픔과 상실에 대한 연구(이운주, 조계희, 이현지, 2007; 최선재, 2011; 허운영, 2012)는 미비한 실정이며, 관련 분야를 포함한 연구에서도 상실에 속하는 부모사별을 포함한 사별가족에 대한 연구(노성미, 2011; 두현정, 2008; 박효실, 2002; 천미영, 2000)와 부모이혼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남영옥, 이상준, 2009; 백지영, 2010; 서지영, 2002; 주소희, 2004; 최창숙, 2006)가 대부분이다. 현재의 학교 상황을 고려해볼 때,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가족 해체 등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실과 이에 따른 슬픔에 대한 학교와 학교상담자의 관심과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실 경험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학교상담이 언제 어떻게 개입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과 슬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학교상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지 ASCA(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국가모형을 적용하여 학교상담자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상실과 슬픔 연구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슬픔과 상실 연구의 역사

Freud(1917)는 「애도와 우울(Mourning and Melancholia)」에서 소아기의 초기 상실이 성인기

우울의 취약성을 야기한다고 했다. 슬픔을 우울증과 비교하는 이 논문에서 그는 슬픔과 우울증 사이에 뚜렷이 나타나는 공통점에 관심을 가졌는데, 슬픔과 우울증은 모두 상실된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포함하고 있었다. Freud는 슬픔에서 괴로움은 정상적이며, '애도작업'의 한 부분임이 틀림없다고 여겼으며, 이 '애도작업'에는 사랑했던 고인이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심리적 에너지를 다시 거둬들이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도작업'에 대해 자신이 초기에 했던 말을 확장시킨 적이 없으며, 이후 연구에서도 사별에 대해 자세히 다룬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reud의 '애도작업'이라는 개념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Bonanno, 2009).

사별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자 기념비적인 저술로 꼽히는 논문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 Erick Lindmann(1944)이 기술한 슬픔에 대한 다섯 가지 증상은 신체적 장애, 고인에 대한 몰두, 죄책감, 적대감, 혼란된 행동을 기초로 한 슬픔의 임상적 과정이다. 그는 현재의 심리적 문제가 과거에 해소되지 못한 슬픔 반응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을 뿐 아니라, 겉으로는 건강해보일지라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두현정, 2008). 그 후, 죽음과 슬픔에 관한 주제를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획기적인 영향을 끼친 Kübler-Ross(1969)는 사별한 사람들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침내 수용에 이르는 슬픔의 다섯 단계를 통과하게 된다고 믿었다. 각 단계는 애도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대부분의 사별한 사람들은 각 단계별로 내재된 갈등을 겪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Anderson(2010)은 Kübler-Ross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

픔의 단계와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단계 이론이 가지는 장점은 혼란스러움을 바로 잡고 슬픔의 불확실성을 예측가능하게 하지만 각 슬픔의 독특함이 간과되고 슬픔의 예측하기 어려운 순환성이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기 상실이 취약성을 만들었고 이것이 성인기 우울증으로 이끄는 소인이 되었다는 Freud의 견해가 최신의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다. 성인기의 다양한 정신과 질환들을 가진 환자들에게 17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부모와 이별함으로써 조기 부모상실을 경험한 비율을 조사한 사례 연구에서 소아기의 부모 상실은 성인기의 주요우울 발생 가능성을 의미있게 상승시키고 있었다. Agid, Shapiro와 Zislan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영구적 이별에 의한 상실 효과는 사망으로 인한 상실보다 더 심각했으며, 9세 이전의 상실은 후기 소아기나 사춘기의 상실에 비해 더 심각했다. 나아가 조기 소아기의 부모 이혼이 우울증의 평생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Gabbard, 2008).

한편, 상실과 슬픔을 좀 더 통합적인 접근으로 설명하고 있는 Schneider(1984)는 상실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실, 변화의 부분으로서의 상실, 분명하진 않지만 성장이나 완성과 관련된 상실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그는 슬픔이 개인의 생리적, 정서적, 행동적, 지적, 영적, 그리고 태도적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지를 보여주었다. Schneider의 슬픔의 6단계 모델은 최초의 자각, 상실을 극복하는 전략, 상실에 대한 자각, 완성, 자기를 강화하기, 상실을 초월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Clapper, 1988). 무엇보다도 Schneider는 상실과 슬픔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통합적인 접근으로 기존의 이론들과는 다르게 상실과 슬픔으로부터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Frears & Schneider, 1981).

이 외에도 슬픔과 상실에 대한 연구는 정신내적 상실, 애매모호한 상실, 예상을 벗어난 상실, 성차에 따라 다른 슬픔의 방식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상실과 슬픔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상실에 따른 슬픔을 치유하기 위한 개입과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Burns, 2010).

### 슬픔과 상실의 특성

상실의 차원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Bloomfield, McWilliams, 그리고 Colgrove(1992)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상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실, 나이와 관련된 상실, 불확실한 상황과 관련된 상실, 피할 수 없는 상실 등으로 나누고 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상실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연애의 종말, 이별, 이혼, 실직, 파산, 강도, 강간 혹은 그 외의 폭력적인 범죄 등이 포함되며, 명확하지 않은 상실에는 이사, 질병(건강의 상실), 전학을 가거나 선생님이 바뀐, 성공(노력할 대상의 상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이상의 상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목표의 상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이와 관련된 상실에는 어린 시절의 꿈들, 첫사랑, 어린 시절의 짝사랑, 사춘기의 연애, 학교를 떠남(중퇴 혹은 졸업), 집을 떠남, '청춘'의 상실, '아름다움'의 상실, 성욕의 상실(혹은 기능의 저하), 폐경, 은퇴 등이 포함되며, 불확실한 상황과 관련된 상실은 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느

낌 자체가 상실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진찰 결과나 시험 성적을 기다릴 때, 이혼 위기를 맞이한 부부, 배우자·연인·친구의 연락두절, 심한 말다툼을 한 후의 연인들, 성사될 듯 말 듯한 사업계약, 소송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다거나 이별을 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상실이 있다.

그 외에도 상실의 차원을 비정형적인 슬픔과 상실, 박탈된 슬픔, 외상적 상실, 그리고 반복되는 외상으로 나누어서 보기도 한다(Burns, 2010). 비정형적인 슬픔과 상실(Nonfinite Grief and Loss)은 죽음과 관련되지 않은 대인관계와 상황을 포함한 상실로 인해 슬픔을 느낀다. 건강, 목표, 꿈의 상실이나 다른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이 포함된다(Bruce & Schultz, 2001). 박탈된 슬픔(Disenfranchised Grief)은 상실이 초래되었을 때 드러내놓고 인정하거나, 공식적으로 애도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지되지 않

았거나 그럴 수 없었을 때 경험되는 슬픔이다(Doka, 1989). 슬픔이 박탈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식은 인정받지 못한 관계, 인정받지 못한 상실, 인정받지 못한 슬픔, 인정받지 못한 상실의 상황, 사회적 동의 없는 슬픔 표현이다(Doka, 2002). 외상적 상실(Traumatic Loss)에서 외상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정서적 고통을 가져오는 갑작스런 폭력이나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야기된 상처나 충격을 의미한다. 외상적 상실이라는 말은 외상과 관련된 상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외상적 상실에 의해 초래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반응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적인 두려움이 증가하고, 학업 태도와 수행에서의 퇴행, 기억이나 회상의 붕괴, 불안에 대한 신체적 증상이나 질병의 등장, 악몽, 사회적 철회, 또는 극도의 변덕스러움을 포함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등으로 나타난다(Sheras, 2000). 무엇보다도, 부

표 1. 상실의 차원이 가지는 특징(Burns, 2010)

비정형적인 슬픔과 상실 (Nonfinite Grief and Lo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슬픔</li> <li>•죽음과 관련되지 않은 상실</li> <li>•건강, 꿈, 목표, 또는 다른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li> </ul>
박탈된 슬픔 (Disenfranchised Gri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음 아픈 상실이 종종 인식되지 않거나 지지받지 못함</li> <li>•인정받지 못한 관계</li> <li>•인정받지 못한 상실</li> <li>•인정받지 못한 슬픔</li> <li>•인정받지 못한 상실 상황</li> </ul>
외상적 상실 (Traumatic Lo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트레스적인, 엄청난 사건의 결과</li> <li>•외상적 사건과 연관된 슬픔</li> <li>•종종 초래되는 장기적인 정서적 고통</li> </ul>
반복되는 외상 (Resonating Trau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상적 상실과 관련</li> <li>•추측과 지속되는 관심에 의해 부풀려진 고조된 걱정과 두려움</li> <li>•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의식과 경계심을 침해</li> </ul>
이차적 상실 (Secondary lo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음 상실의 결과에 따라 경험</li> <li>•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음</li> </ul>

모의 이혼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외상적 사건으로 경험되는 가장 슬픈 사건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외상적 상실과 연관된 반복되는 외상(Resonating Trauma)은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추측에 의해 고조된 두려움과 불안이 합쳐진 결과로 외상적 사건에 뒤이어 나타난다(Gordon & Doka, 2000). Burns가 분류한 상실의 차원이 가지는 특징을 간략하고 보기 쉽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하루나 단기간에, 때로는 보다 긴 시간이나 혹은 일생을 거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상실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와 같이 상실은 언제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무기력증, 두려움, 공허함, 비판, 조바심, 울화, 자책감, 불안정, 집중력 감소, 희망·동기·활력 등의 소멸, 식욕과 수면습관 등의 변화, 심한 피로감, 잦은 실수, 느려진 말이나 행동 등으로 슬픔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다(Bloomfield, McWilliams, & Colgrove, 1992). 슬픔은 상실에 따른 내적 세계의 재형성 과정으로 상실을 경험한 당사자와 상실의 특성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반응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Antonio, 2011; Heath et. al., 2008; Perry, 2001). 이러한 경험은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슬픔에 대한 반응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영역에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각 개인의 슬픔에 대한 반응은 독특하며 이전에 경험한 상실, 문화, 나이 등의 영향을 받는다(Antonio, 2011). 각 개인은 자신의 슬픔을 다른 방식, 다른 기간으로, 그리고 우울에서부터 분노, 회피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표현한다.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에 대한 정의는 합의되지 않고 있다(Howarth, 2011).

상실에 따르는 슬픔은 예측되는 슬픔과 예측할 수 없는 슬픔(Anticipatory Grief Versus Unanticipated Grief)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측되는 슬픔은 우울, 병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큰 걱정, 죽음에 대한 준비를 포함한다. 이 슬픔은 슬픔에 빠진 사람이 상실의 현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며, 감정을 표현하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Fulton & Fulton, 1971). 예측할 수 없는 슬픔은 종종 갑자기, 예상 밖의 상실로부터 초래되는 복잡한 슬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슬픔반응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만성적이거나 매우 장기화된 슬픔 반응, 지연되거나 나중에야 드러나는 슬픔 반응, 과장되거나 잠정적으로 정신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슬픔 반응, 위장되거나 상실과 관련된 것으로 인지되지 않는 신체적 증상과 행동에서의 변화이다(Wordon, 2008). 예측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슬픔 반응은 상실이 나타난 후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다. 한편, 상실이 초래되었을 때 드러내놓고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식적으로 애도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지받지 못했거나 그럴 수 없었을 때 경험되는 슬픔을 박탈된 슬픔(Disenfranchised Grief)이라고 한다(Doka, 1989). 상실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의 슬픔을 지지해 주지 않거나 아픔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동기에 경험한 상실의 영향은 후기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다(Walker & Shaffer, 2007).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슬픔은 가장 고통스러운 정서적 경험 중 하나이다. 슬픔은 상실과 관련된 정서적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 무감각, 심지어는 죄책

표 2. 슬픔에 대한 반응: 4가지 영역에서의 변화(Heath et. al., 2008)

신체적: 행동에서의 변화	정서적: 감정에서의 변화	인지적: 생각에서의 변화	사회적: 관계에서의 변화
울음	슬픔	회피	철회
안절부절	우울	부인	소외
싸움	희망없음	산만한	투쟁적인
짜증	무망감	부주의한	적대적인
에너지의 부족	충격받은	혼란스러운	관심을 구하는
과흥분	압도된	회의적인	반항적인
악몽	억울함	죽음에 몰두하는	
식욕부진	무감각	환상	
과식	안심하는		
복통	죄책감		
두통	화		
집착과 불안정	기분변화가 심한		
화장실에서의 실수	불안		
손가락 빨기	과민한		

**주의.** 문제 행동의 강도와 기간을 둘 다 고려해야 한다. 이 행동이 과도하면서 오래 지속된다면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감이나 분노의 시기를 견뎌내면서 “정상적”인 슬픔의 과정을 경험하는데, 상실을 수용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이 감정들은 점차적으로 희미해질 수 있다(Howarth, 2011). 하지만 상실의 경험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 그것은 심리적 외상이 되어 개인의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이후의 생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심리적 외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발전하기도 하며 침투적인 사고와 신체적인 반응을 포함한 PTSD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다(최선재, 2011).

슬픔과 상실 연구를 통해 어린 시절의 상실 경험은 분명하게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성인기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을 고려해볼 때, 그들의 슬픔의 과정은 복잡하다. 긍정적인 사회적, 가족적, 공동체적, 문화적 자원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청년기로 성장해가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외로움과 슬픔의 예측불가능성에 직면할 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기에 경험한 슬픔과 상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이들의 적응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상실과 그에 따른 슬픔의 과정을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아동 및 청소년들의 슬픔과 상실 경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죽음과 관련된 전형적인 상실 외에도 이혼, 가족의 재구성(예: 새로운 형제, 결합 가족, 다세대가 함께 사는 것), 이사, 가정 폭력, 학대와 방치, 빈곤, 부모 또는 양육자의 물질 남용, 가족 구성원의 감금, 가족 내에서의 정신적 질병, 가족 구성원 또는 친밀한 친구의 심각한 병,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의 무능, 친구(또는 우정)의 상실, 이사, 전학 또는 졸업, 성적 하락, 학교폭력 등의 비전형적인 상실을 경험한다. 청소년기의 슬픔은 전형적으로 혼돈, 울음, 공허감 또는 외로움, 수면과 식이 장애, 소진 등으로 표현되며,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슬픔이 독특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Hoeksma & Larson, 1999). 청소년들의 슬픔의 과정은 성인들의 애도를 그대로 보여주기 보다는 아동들과 더 비슷하게 드러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실과 그에 따른 슬픔은 다양하지만, 이 시기의 부모의 이혼, 부모와의 사별, 그리고 친구의 자살 등은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이혼은 아동 및 청소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사건으로 표현되며 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혼에 반응하는 아동은 그들이 죽음을 애도해 하는 것과 유사하게 반응한다.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두고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 자신의 생활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혼 후 달라진 생활의 변화에 부모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은 비행에 저지를 확률이 높으며(전

명희, 2001),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양부모가정의 자녀보다 더 일탈행위를 많이 범하며, 비행행동을 할 위험수위가 더 높다(Dornbursch et al, 1985). 한편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슬픔, 상실감, 이혼에 대한 거부감, 부모에 대한 분노, 무력감, 강한 외로움, 의기소침함 등의 정서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들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들은 또래관계에서 고립되어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배주미, 지승희 외, 2007).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업이나 행동의 문제를 보이거나 갑자기 집중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있을 수도 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이혼 후 부재함으로서 자녀는 사회화 과정에서 역할 모델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정서적 지지원도 줄어들어 사회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배주미, 지승희 외, 2007; Amato & Keith, 1991). 이와 같은 이혼가정의 특성들로 모든 이혼 가정의 자녀가 특정한 심리적인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는 비이혼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학업적 성취, 자아개념, 모-자녀 관계, 부-자녀관계, 품행,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다(이삼연, 2001; 배주미, 지승희 외, 2007; Amato & Keith, 1991). 그리고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심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약물남용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일반 가정과의 비교



를 통해 심리, 사회적 부분에서 이혼 가정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백지영, 2010; 이수연, 2004; 조경미, 주혜주, 2003; 최창숙, 2006).

학령기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부모 사별경험은 다른 또래들이 잘 경험하지 않는 특수한 경험으로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모의 상실은 이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가져오게 된다. 부모를 사별한 슬픔은 자녀들에게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죄책감 등을 동반하기도 하며 심리적인 손상뿐 아니라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학업 수행에서의 어려움 등 행동의 측면에 손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사별 사건은 자녀들의 삶의 안녕을 저해하며 변화된 가족구조에 지속적으로 재적응해야 하는 2차적인 어려움을 동반한 위기사건이라 할 수 있다(박효실, 2002). Kolk, McFarlane과 Weisaeth(1996)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들은 사별이후 수면장애 등을 보이며 위통, 두통과 같은 신체적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시무룩해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박효실, 2002).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별대상에 대한 감정표현을 어려워하고 점차적인 사회적 고립감과 정서적 혼란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의 죽음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또한 같은 연령의 아동에 비해 불안과 우울증을 많이 나타내며, 쉽게 당황해하고 사람들에게 화를 잘내고 부모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증가하기도 한다. 임상학자들은 부모의 죽음이 자녀의 학업수행과 사회적 행동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박효실, 2002).

부모의 상실이나 친밀한 가족구성원의 상실은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 재적응 척도에서 가장 높은 항목 중의 하나로 연구되었다(Kirk, 1993). 많은 저자들이 사별 경험을 한 청소년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사회적, 생물학적인 변화 때문에 상실감에 대해 취약성이 있다고 밝혔다(박효실, 2002). 특히 아동기 부모의 죽음은 우울과 불안 장애의 명확한 위험요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Tyrka, Wier, Price et al, 2008). 사별로 인한 슬픔의 정도와 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고인과의 상호관계의 정도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슬픔은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반응이지만 병적인 상태로 이행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잘 관리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 어렵게 된다(노성미, 2011).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살생존자에 해당되는데, 자살생존자는 가까운 사람을 자살로 잃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며 자살 사망에 따른 상실의 애도과정과 기능적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배주미, 이승연, 김은영, 2010; Baume, 1992). 자살생존자의 애도과정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때문에 애도를 겪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지승희 외, 2008). 청소년 자살생존자들은 성인 자살 생존자들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애도 반응을 보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보이게 되는데, 모방자살의 위험이 자살 발생 후 3주 내에 가장 높고, 사전에 정신적 취약성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삶의 사건을 겪고 있을 때 자살위험이 높아진다. 즉 가까운 혹은 의미있는 사람이 자살을 할 경우

청소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모방자살의 위험성이 더 높고, 사전취약성이 있을 경우 자살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배주미, 이승연, 김은영, 2010).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친구의 상실은 이들의 학교생활 중 대인관계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가까운 친구가 자살했다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학교 차원의 자살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자살생존자들을 위한 긴급한 상담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사별 가정, 그리고 청소년 자살은 그 자체만으로도 연구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학교상담을 포함한 개입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기 때문에 보다 확대된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부모의 이혼을 포함해서 부모나 가까운 친지와 사별도 중요한 대상의 상실이고, 친구나 동년배의 자살은 자살 생존자들에게 우정을 포함한 관계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상실을 통한 정서적인 측면의 슬픔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에 따른 슬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학교상담은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슬픔과 상실 경험에 대한 학교상담의 개입

상실 경험과 그에 따른 슬픔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 발달적, 그리고 학업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학교상담에 기초한 개입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상담자가 상실의 충격을 이해하고

슬픔에 빠진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개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Beckel, 2006).

학교장면에서, 문제 행동은 부모, 교사, 그리고 학교상담자에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로 이전의 행동과 비교해서 현재 문제 행동의 증가는 상실로 인해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행동의 변화를 평가할 때, 문제 행동의 정도와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입을 위한 목표가 되는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며 부모와 교사가 문제 행동을 드러낸 학생과 원활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가지기 어렵다(Heath et al., 2008). 이러한 문제 행동이 해결되지 않고 과도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될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아동 및 청소년들이 슬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어떤 행동이 파괴적이거나 부적응적이라면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교사와 부모는 학교상담자 또는 학교심리전문가에게 지지와 지침을 얻기 위해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미국학교상담자협회(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ASCA)는 2003년에 이전까지 개발된 다양한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통합한 학교상담 모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ASCA 모형에 따르면 학교상담은 학업, 진로, 개인/사회발달의 3가지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4가지 형태로 전달한다. 즉, 생활지도(Guidance Curriculum), 개별계획(Individual Planning), 반응적 서비스(Responsive Services), 그리고 체제지원(System Support)의 형태로 전달될 수 있는데 학교상담자는 각 학교에 맞는 종합적인 학교상담프로

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 경험과 슬픔에 대한 개입은 이 ASCA모형에 기초해서 개입할 때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ASCA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형태의 학교상담 전달방식에 기초한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 경험에 대한 기존의 개입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상담자 및 심리전문가는 한국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상실과 그에 따른 슬픔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앞으로 그럴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상담자는 먼저 생활지도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 생활지도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집단지도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발달 단계에 맞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에 기초한 그룹이나 학급단위의 수업으로 진행되거나 부모교육 또는 워크숍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위기 상황이 아닌 죽음 교육(noncrisis death education)은 부모와 사별한 학생을 위한 개입에 집중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위기가 아닌 시기에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주제가 논의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가 아닌 죽음 교육이 지지되고 있다(Edgar & Howard-Hamilton, 1994).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죽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실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에게 도움과 지지가 될 수 있다(Charkow, 1998). 죽음 교육이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상담자가 이와 같은 생활지도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면 많은 학생들은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Glass, 1991). 죽음을 포함한 상실에 대해 이야

기를 할 때는 죽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며, 이별, 건강, 병, 죽음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학생들이 슬픔을 표현할 기회도 함께 제공해 준다. 더불어 학생들이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미리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교실 내에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교실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사는 먼저 상실을 경험한 학생에게 전화를 해서 교실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지 물어볼 수 있다. 이때 비밀유지의 윤리적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상담자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다른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해도 되는가를 부모로부터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교실 내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상실을 경험한 친구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것인지, 그리고 각자 경험한 상실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토론하면서 각 개인마다 상실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음을 알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학생은 혼자있기를 원하지만, 다른 학생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실 경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들이 상실 경험 이전처럼 대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Beckel, 2006; [www.dougy.org/grief-resources/death-impacts-your-school](http://www.dougy.org/grief-resources/death-impacts-your-school)). 많은 학생들은 상실을 경험한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결국 부주의하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상실을 경험한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Moore & Herlihy, 1993). 따라서 위기상

황이 아닌 죽음교육 뿐만 아니라 교실 내에서 죽음과 관련된 상실이 있을 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상실 경험을 한 학생이 자신의 교실로 돌아온 것을 지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둘째, 개별계획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개별계획은 특정 개인의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여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상실 경험 이후에 학교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제행동이라면 학업과 진로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특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는 비이혼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학업적 성취, 자아개념, 모-자녀관계, 부-자녀관계, 품행,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문섭, 2004; 배주미, 지승희 외, 2007; 이삼연, 2001; Amato & Keith, 1991). 따라서 이혼을 포함해서 상실 경험을 한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 진로, 개인적·사회적 발달의 측면에서 상실경험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양한 심리검사 등을 활용하여 정확히 평가한 후 각자의 목표설정 에 따라 학습과 필요한 공부법 등을 맞춤형으로 지도해주거나 진로계획에 따른 체계적 활동을 조언 및 모니터링 해 줄 수 있다. 이때 상실 경험에 대해서는 상실 경험 관련 질문지(임선영, 2012; 최선재, 2011; Sofka, 1997), 슬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로는 사건충격척도(최선재, 2011), 간이증상도구(최선재, 2011), Grief/Depression Assessment Inventory(Schneider, 2001), Texas Inventory of Grief(Faschingbauer, 1977; 차유림, 2012)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행동적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오경자 등, 1997; 차유림, 2012), 학교 적응을 알기 위해서는 학교적응 유연성척도(박현선, 1998; 차유림, 2012)

등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셋째, 학교상담자의 가장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개인 및 집단상담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반응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상실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개인 및 집단상담은 가장 적합한 개입이 될 수 있다(Charkowl, 1998; Glass, 1991; Muro & Kottaman, 1995). 예를 들어, 부모의 죽음은 아동의 학교 수행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개인상담은 학교상담자가 할 수 있는 개입 중 하나로 진심으로 공감함으로써 상실을 경험한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이때 학교상담자가 좋은 경청자가 되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Beckel, 2006; Kandt, 1994). 그리고 학교상담자가 상실을 경험한 학생의 복잡한 감정을 존중해줌으로써 안심하도록 돕는데, 이는 안정감 속에서 상실 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어린 학생들은 정확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상담에서 놀이치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Webb, 2000). 그러나 가끔 학생들은 개인상담에서 얘기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청소년들의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에는 성인과 거리를 두면서 독립적으로 대처하려는 특성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학교상담자는 유사한 상실을 경험한 학생들과 소집단 상담으로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집단상담은 그들의 슬픔 반응이 아주 심하더라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안심시켜주며, 소집단에서 자신의 상실 경험을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위로와 지지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Beckel, 2006). 그리고 슬픔을 나누는 또래 집단(Peer grief groups)은 사별과 같은 상실 경험을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준다(Worden, 1996). 부모사별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배우자의 죽음 경험에 압도된 생존부모가 적절한 지지를 해주지 않을 때 특히 또래지지가 중요하다. 집단 상담의 긍정적인 측면은 집단 상호작용에 글쓰기, 독서, 미술, 음악, 놀이 등의 다양한 창의적 기법이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이다(Bacon, 1996; Schuurman, 2000). 이 기법들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덜 위협적일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위기상황에 대한 집단상담은 외상적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소외의 감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집단 응집력과 유대감을 높이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증상을 줄이면서, 학생들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Cohen et al., 2006; Nickerson, Reeves, Brock, & Jimerson, 2009; Poland, 2002).

많은 연구들에서 특히 집단상담이 외상을 입거나 사별을 경험한 아동들에게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Chemtob, Nakashima, & Hamada, 2002; Finn 2003; Openshaw, 2011; Salloum & Overstreet, 2008; Stubenbort & Cohen, 2006), 집단상담은 소외의 감정을 감소시키고 상실의 감정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들의 대처 기술을 지원하고 슬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Finn, 2003; Openshaw, 2011). 많은 경우 개인상담보다는 소집단 상담이 보다 비용효율이 높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고, 학교 장면에서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Worden, 1996). 학교는 어떤 위기상황이나 비극을 경험한 이후에 집단으로 개입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Jaycox, Langley, Dean, Stein, et. al., 2009). 예를 들면, 외상을 경험한 대다수의 학생과 관련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상담자 및

심리전문가는 학생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즉각적인 개입을 제공하고,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정시킨다(Openshaw, 2011).

지금까지는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을 제공하는 개입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학교상담자는 체제지원의 차원에서 상실 경험으로 슬픔에 빠져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가까이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도움도 제공할 수 있다. 학교상담자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들의 상실 경험과 슬픔 반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전문가적 발달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Beckel, 2006), 학교 교사나 행정 직원들은 위기개입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학교 또한 위기개입을 실시할 체계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상담자는 교사와 기타 학교 행정직원들이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자원인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에 기여하고 편견없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르도록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슬픔 속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도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살 사후개입이 실제로 수행되는 외국의 경우에도 교사들이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살피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간주하지만 자살의 위험요소나 단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거나, 자살 발생이후 다른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데 어려움을 보고하였다(배주미, 이승연,

김은영, 2010). 최근 관련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자살과 관련된 행동특징을 판단하는데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교사 경험이 있는 교사들도 일반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살 위험 학생의 식별에 대한 자신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주미, 이승연, 김은영, 2010; 이승연, 2007). 자살이나 상실 관련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는 효과적인 자살예방 및 상실 경험 이후의 개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상담자는 교실 내에서 교사가 자살을 포함한 상실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으로 돕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상실 경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자문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사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상담자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 논의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으며 슬픔은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마다 슬픔에 따른 반응도 다르고 대처방법도 다르다. 하지만 슬픔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관심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 시기에 경험한 상실의 영향은 후기 성인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성장 과정 중에 있

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상실과 슬픔 경험에 대해 누군가 정서적으로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훨씬 쉽고 빠르게 회복되어 안정적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실과 슬픔에 대한 학교상담의 개입은 아주 중요해진다.

최근 국내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이혼가정 청소년 상담개입(2007)과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2010)과 같이 특정 상실 경험에 대한 개입방안에 대한 매뉴얼과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지만, 학교장면에서 실제로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어떤 상실을 경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은 물론 학교 내에서 학교상담자가 상실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미비하다. 학교상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과 슬픔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 또한 전문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상실을 경험한 아동과 가족을 돕는 기관(예: The Children Bereavement Center of South Texas, The Dougy Center-The national for Grieving Children & Families, UT Counseling and Mental Health Center, Australian Centre for Grief and Bereavement 등)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뿐만 아니라 부모나 전문가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The Dougy Center의 경우,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슬픔에 대해 반응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2~4세, 4~7세, 7~11세, 11~18세로 세분화해서

단계에 따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슬픔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개입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성인들뿐만 아니라 학교나 가족이 슬픔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상담자가 상실 경험 아동 및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나 지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자원은 다양한 상실의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상실과 그에 따른 슬픔에 잘 대처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학교상담적 개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과 그에 따른 슬픔 경험에 관심을 가진 연구와 함께 학교상담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상실과 슬픔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실제적인 상담 개입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학교 장면에서 적합한 상담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레인보우 프로그램은 가족의 사별, 부모의 이혼, 별거, 유기 등의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상실의 고통을 받는 아동들을 위해 슬픔을 공유하고 지지해주는 집단 프로그램이다(배주미, 지승희 외, 2007). 집단은 치료나 상담의 형태가 아니라 엄격하게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슬픔 감정을 이해하게 하고, 정서적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존감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며, 가족의 변화로 인해 일어

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연령 수준에 맞는 놀이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게임, 의식, 독서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이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감정을 드러내는데 언어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의식을 통해 아동 자신의 정서를 존중해주고, 감동을 주는데 효과적이며, 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의 책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놀이활동 중심의 개입이 죽음이나 상실에 대한 이슈를 부담스럽지 않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촉진하므로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 학교상담자의 인력과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모든 상실에 대한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실 경험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만든다면 이사, 전학, 애완동물의 죽음, 우정의 상실, 성적하락 등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상실 경험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친구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통의 상실 경험을 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교사는 쉽게 파악해서 학교상담자에게 의뢰할 수 있고, 이들은 생활지도, 개별계획 및 반응적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규교과과정으로 시간이 꼭 찬 교육현실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집단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쉽지 않았지만, 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건강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또는 변화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실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의 슬픔을 이해하고, 학교상담에서 ASCA 모형에 따라 개입하는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으나 구체적인 개입과 방안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 또한 외상적 상실경험에 대한 애도과정 및 슬픔 반응은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상실경험에 대해 다루다 보니 본 연구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이 경험하는 모든 상실이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실 중에는 그 상실을 통해 성장과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상실경험에 대한 발달적 측면(성장과 성숙)은 또 다른 큰 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아동 및 청소년의 슬픔과 상실 경험에 대한 연구와 학교상담의 개입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실과 슬픔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모든 상실에 따른 슬픔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실 경험을 한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실에 대해 파악하고 이러한 상실이 그들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기초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발달 단계에 따라 상실과 슬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떤 상실과 슬픔 경험을 보고하는지, 특히 발달 단계에 따라 자신

의 상실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실 경험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등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실에 따른 슬픔은 발달단계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이혼에 따른 경험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백지영, 2010)는 연구에서처럼, 상실에 따른 슬픔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상실경험을 받아들이는 것과 슬픔에 대한 표현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도움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겠다.

셋째, 실제 상실과 슬픔 경험을 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학교상담자들은 현재 어떤 개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교육이나 지침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 또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상담교사를 포함해서 학교상담자가 각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학교상담자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상담장면에 대한 지침 또한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학교상담자들은 상실을 경험한 학생들의 슬픔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상담개입에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상담자들이 상실 경험 아동 및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상담개입을 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및 연구가 확대되고 상실경험과 관련된 상담 지침 또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앞서도 논의된 것처럼 상실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실이 개개인에



게 끼치는 영향은 아주 다를 수 있다. 또한 상실 경험으로 인한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고통이 심해지고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실 경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담개입은 대부분 사후 개입인데,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상실과 그에 따른 슬픔에 잘 대처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상담 개입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그 후 효과에 대해 검증해볼 수 있는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상담은 다양한 상담 영역 중 한 분야이면서 청소년상담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과 슬픔에 대한 연구와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더 크게는 학교상담, 청소년 상담, 그리고 상담 전반에 통합되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남영옥, 이상준 (2009), 이혼가정 여부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청소년학연구, 16(5), 121-142.  
 노성미 (2011), 청소년기 부모 사별을 경험한 장병과 비경험 장병의 정서지능에 관한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두현정 (2008), 사별가족의 슬픔 적응 경험-지역 사회 호스피스 간호를 받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효실 (2002), 부모사별 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대처자원과 가족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주미, 지승희, 허진석, 김은영, 김태성, 박재연 (2007), 이혼가정 청소년 상담개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137.  
 배주미, 이승연, 김은영 (2010),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학교장면에서의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156.  
 백지영 (2010), 부모 이혼에 대한 청소년기 자녀의 갈등과 대응,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지영 (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민규 (1997), 상실과 슬픔의 이해, 신학사상 97(2), 90-122.  
 유희정 (2005), 미국의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3(6), 81-96.  
 이삼연 (2002), 이혼 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5.  
 이윤주, 조계희, 이현지 (2007), 사별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분석, 상담학 연구, 8(3), 839-857.  
 임선영, 권석만 (2012), 대학생의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관한 연구: 인지적 유연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261-281

- 주소희 (2003),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혼가정자녀의 심리·행동 적응문제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2, 179-210.
- 주소희 (2004), 부모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승희, 김명식, 오승근, 김은영, 이상석 (2008),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 및 개입 방안 개발, *한국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141.
- 전명희 (2001), 이혼 후 자녀의 양육형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유림 (2012),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적응유연성 관점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천미영 (2000), 가족 사별 후의 슬픔 경험, 가족의 강인성 및 관리자원과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0(6), 1569-1579.
- 최창숙 (2006), 이혼 가정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재 (2011), 상실경험의 의미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윤영 (2012),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 탄력성과 대인관계만족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 Anderson, H. (2010), Common grief, complex grieving, *Pastoral Psychology*, 59, 127-136.
- Antonio, J. D. (2011). Grief and loss of a caregiver in childre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49(10), 17-20.
- ASCA (2003). *The ASCA National Model: A Framework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 Baume, P. (1992). Suicide: A crisis for the whole family should suicide survivor be managed differently? *AIC Conference Proceedings*, 13, 279-288.
- Beckel, J. R. (2006). *Supporting parentally bereaved students: The school counselor's ro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Stout, US.
- Bloomfield, H. H., McWilliams, P. & Colgrove, M. (2006). 상실과 치유의 심리학[How to survive the loss of the a love(권혁 옮김), 서울: 돌출새김. (원전은 1992에 출판).
- Bonanno, G. A. (2010). 슬픔 뒤에 오는 것들[The Other Side of Sadness: What the Science of Bereavement Tells Us about Life after Loss] (박경선 옮김), 서울: 초록물고기. (원전은 2009 에 출판).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Allman, C., Roth, C., Schweers, J. et al. (1993). Psychiatric risk factors of adolescent suicide: A case control study, *Journal of the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521-529.
- Bruce, E. J. & Schultz, C. L., (2001), *Nonfinite loss and grief: A Psychoeducational approach*, Baltimore, MD: Brookes.
- Burns, D. M. (2010). *When Kids Are Grieving: Addressing Grief and Loss in School*, California: Corwin.
- Ciacco, J. D. (2009). 슬픈 아이들의 심리학[The Colors of Grief: Understanding a Child's Journey Through Loss from Birth Adulthood]

- (정연희 옮김), 서울: Human & Books.(원전은 2008에 출판).
- Clapper, A. T. (1988). *A study of loss and grief as produced by mandated educational chan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rake University, USA.
- Charkow, W. B. (1998). Inviting children to griev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 117-123.
- Chemtob, C. M., Nakashima, J. P. & Hamada, R. S, (2002). Psychosocial intervention for postdisaster trauma symptom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 controlled community field study,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6, 211-216.
- Cohen, J. A., Mannarino, A. P. & Deblinger, E. (2006). *Treating trauma and traumatic grief in children and adolescent*. New York, NY: Guilford.
- Doka, K. J. (1989). *Disenfranchised grief: Recognizing hidden sorrow*.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Doka, K. J. (Ed.). (2002). *Disenfranchised grief: New directions, 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practice*.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Dombusch S. M. J. Merrill Carlsmith, Steven J. Bushwall, Philip I., Ritter, Herbert Leiderman, Albert H. Hastorf, Ruth T. Gross (1985). Single Parents, Extended Households, and the Control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2), 326-341.
- Dutton, J. C. (1999). *An investigation of adolescent knowledge of the grief proc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Laverne. USA.
- Edgar, L. V. & Howard-Hamilton, M. (1994). Noncrisis death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29, 38-47.
- Finn, C. A. (2003). Helping student cope with loss: Incorporating art into group counseling, *The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28(2), 155-165.
- Frears, L. H. & Schneider, J. M. (1981). Exploring loss and grief within a wholistic framework,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341-345.
- Fulton, R. & Fulton, I. (1971). A psychosocial aspect of terminal care: Anticipatory grief. *The Journal of Death and Dying*, 2, 91-100.
- Gabbard, G. O. (2008). 역동정신의학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Fourth Edition)], (이정태 · 채영래 역), 서울: 하나의학사.(원전은 2005에 출판).
- Glass, J. C. (1991). Death, loss, and grief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Implication for the school counselor,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26, 139-149.
- Gordon, J. D. & Doka, K. J. (2000). Resonating trauma: A Theoretical note. In K. J. Doka (Ed.), *Living with grief: Children, adolescents, and loss*(291-293). Washington, DC: Hospice Foundation of America.
- Granados, S. (2009). Grief Counseling Groups for Adolescents Based on Re-Membering Practices, *Journal of School Counseling*, 7(34), 1-26.
- Heath M. A., Leavy D., Hansen K., Ryan K., Lawrence L., & Sonntag A. G. (2008). Coping With Grief: Guidelines and Resources for Assisting Children, *Intervention in School and*

- Clinic*, 43(5). 259-269.
- Hooyman, N. R. & Kramer, B. J. (2006). *Living Through Loss: Intervention Across the Life Span*,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eksema, S. N. & Larson, J. (1999). Coping With Loss-Personality and Clinical Psychology Seri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ondon.
- Howarth, Robyn A (2011), Concepts and Controversies in Grief and Los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3(1) 4-10.
- Howarth, R. A. (2011). Concepts and controversies in grief and los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3(1), 4-10.
- Hunt, B. (2007). Teaching A Grief and Loss Counseling Course, *Rehabilitation Education*, 21(2). 101-106.
- James, J. W & Friedman, R. (2004). 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The Grief Recovery Handbook] (장석훈 옮김), 서울: 북하우스. (원전은 1998에 출판).
- Kandt, V. E. (1994). Adolescent bereavement: Turning a fragile time into acceptance and peace, *School Counselor*, 41(3), 1-10.
- Lawhon, T. (2004). Teachers and Schools can aid Grieving Students, *Education*, 124(3). 559-566.
- Moore, J. & Herlihy, B. (1993). Grief group for students who have had a parent die. *School Counselor*, 41(1), 54-60.
- Openshaw, L. (2011). School-based support groups for traumatized stud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2(2). 163-178.
- Perry, B. D. (2001). Death & Loss: Helping Children Manage Their Grief, *Scholastic Early Childhood Today*, 15(4), 22-23.
- Salloum, A. & Overstreet, S. (2008). Evaluation of individual and group grief and trauma interventions for children post disaster, *Journal of Clinical and Adolescent Psychology*, 37(3), 495-507.
- Schuurman, D. L. (2000). The use of group with grieving children and adolescent. In K. J. Doka (Ed.), *Living with grief: Children, adolescents, and loss*(350-49). Washington, DC: Hospice Foundation of American.
- Schneider, J. M. (2001). Grief/Depression Assessment Inventory, [http://www.integraonline.org/assessments/grief\\_depression\\_inventory.pdf](http://www.integraonline.org/assessments/grief_depression_inventory.pdf)에서 자료 얻음.
- Sheras, P. L. (2000). Grief and traumatic loss: What schools need to know and do. In K. J. Doka (Ed.), *Living with grief: Children, adolescents, and loss*(275-290). Washington, DC: Hospice Foundation of American.
- Trozzi, M. (1999). *Talking with children about loss: Words, strategies, and wisdom to help children cope with death, divorce, and other difficult times*. New York: Perigree.
- Tyrka, A, Wier, L, Price, L, Ross, N, & Carpenter, L (2008). Childhood parental loss adult psychopathology: Effects of loss characteristics and contextual factors. *Int'l Psychiatry in Medicine*, 38(3). p.329-344.
- Walker, P. & Shaffer, M (2007), Reducing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Dealing with Grief and Loss: A Program Evaluation Report, *Health & Social Work*, 32(1), 67-68.
- Worden, J. W. (1996). *Children and grief: When a parent dies*. New York: Guilford.
- Worden, J. W. (2008).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http://www.cbcsst.org>  
<http://www.dougy.org>  
<http://www.gtief.org.au>  
<http://www.griefhelpsacramento.com>  
<http://www.helpguide.org>  
UT Counseling and Mental Health Center

원 고 접 수 일 : 2013. 02. 01.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4. 22.

최종게재결정일 : 2013. 04. 26.

## Grief and loss of youth in school and interventions based on school counseling model

Unyoung Yoon

Kumlan Yu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article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grief and loss of youth fo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s specifically reviewed on experience of loss (e.g. death of parents or friends, experiencing parents' divorce or loss of significant relationships) and grieving process of youth. Children and youth with loss could experience emotional difficulties (e.g. depression, detachment, guilty, and anger depressions) with physical, cognitive and social change. Thus, it is critical for school counselors or psychologists to understand their grief and loss for providing effective interventions. The study reviewed effective interventions based on ASCA national model and implications to Korean culture were discusse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grief and loss, youth, school counseling*